진리
평화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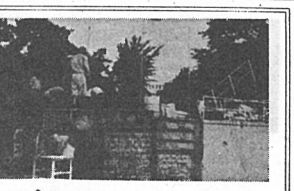
발행인 최 광 복
편집인 안 병 만
주 간 석 일 균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
외 대 신 문 사
전화 ☎ 7128 (직통)
우편번호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 발 우 영

외대학보

(1958. 3. 27. 제 3 종우편물인가)
(등록번호 제다 253호)

제 2 8 7 호
<순간>
1979년
9월11일 발행
등록 1960년 7월 1일
창간 1955년 4월11일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외문촛불

젊은 지성과 낭만이 펼쳐질 제전을 춘대하는 소리없는 일꾼들의 손은 바쁘기만 하다.

<연단 확장작업>

제12회 모의 올림픽 20일 개막

육상·구기등 9개 종목에 걸쳐
외문축제— 24일 전야제 거행

○…… 개교이래 25개 성상의 성년을 맞으며 늦푸른 초가을 하늘 아……○
○……제 젊은지성들의 정열과 낭만을 포효(咆哮)할 개교 25주년 기념……○
○……제12회 모의 올림픽이 오는 9월20일부터 27일까지 본대학 교정……○
○……에서 4천여 외대 건각들의 참여하에 거행될 예정이다. 한편 모……○
○……의올림픽 기간중 24일부터는 제6회 외문축제가 막을 올려 29일……○
○……까지 거행되게 된다.

9월20일 본대학 대운동장에서 거행되는 개회식을 선두로 구기와 육상등 남여 각 종목경기가 열전에 돌입하게 되는 금년 제12회 모의 올림픽에는 처녀출전하는 2부대를 비롯 전학과 3천5백여명이 각축을 벌이게된다.

선수입장과 오륜기게양으로 시작되는 개회식 팡파레에는 개막선언과 함께 심파가 엄폐되어 이어 능악을 비롯한 마스게임이 펼쳐지게 된다.

심판석으로 19일 오후 1시부터 각종목에선 경기가 시작되는 금년 모의올림픽 경기내용을 보면 예년과 같이 남학생은 축구, 아구, 농구, 핸드볼, 배구 (6인제) 등 5개 구기종목중 3개 종목을 택해 출전하게 되며 여학생은 농구, 배구, 소프트볼, 핸드볼 4개 종목중 2개종목 혹자 심판전원으로 구성된 소청위원회를 설치키로 하였다.

각 경기마다 부보선수는 해당자의 재학생이면 누구나 허용되며 부정이 발생할 경우 발견즉시 이의를 제기해야하고 심판자 소청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해당게임만 무효화하게 된다.

출전선수에 대한 일반자격 결정은 유고결석으로 처리되며 모의올림픽 기간동안 개막식 당일과 결승전이 벌어지는 27일은 전면 휴강키로 예정이다. 또한 24일과 28일은 4교시이후 휴강하며 2부대는 전면휴강하게 된다.

금년 모의올림픽의 시상은 남·여 1, 2, 3위 종합시상과 각 종목별 시상, 입장상이 있으며 최우수선수상은 각 구기종목마다 1명에게 돌아가며 소청위원회에서 준결승전 이상 진출한 팀에게 심판이 추천한 선수를 투표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구기종목의 참가팀편성은 다음과 같다.

남자 : ▲축구 : 25▲아구 : 23▲배구 : 13 ▲농구 : 14 ▲핸드볼 : 11.

여자 : ▲배구 : 14▲핸드볼 : 7 ▲농구 : 8 ▲소프트볼 : 13.

교수신규임용
학부 8명, 통역대 5명

본대학에서는 79학년도 2학기에 교수13명을 신규 임용했다.

학부 8명과 통시통역 대학원 전임교수 5명을 채용한 이번 임용은 본대학교수의 전출, 귀국한 외국인교수의 부임으로, 또는 새로운외국인교수 및 전임교수확보등의 조치로 취해진 것으로써 부임한 신임교수와 사임교수는 아래와 같.

신임교수 ▲영어과 : Kenneth E. Killoren (학부 및 통시통역대학교수 · 미국 St. Louis대 · 석사), Lim Constance, C (학부및 통시통역대학원조교수 · 미국 Rutgers대 · 교육학박사) ▲프랑스어과 : 이동열 (조교수 · 프랑스 몽펠리에대 · 문학박사), Marie-Jo Wustenberghs (리장 · 프랑스리에즈대 · 로만어학석사) ▲스페인어과 : 민용태 (조교수 · 스페인 마드리드대 · 어문학박사) ▲아랍어과 : Arif Karkhi Abu Khudairi Al-laaggagi (리장 · 이집트 카이로대 · 석사) ▲한국어교육과 : 박기덕 (조교수 · 연세대학원 · 문학박사) ▲경제학과 : Khang Chulsoon (교수, 미국 미네소타대 · 박사) ▲통시통역대학원 : Elaine Tashiro Gerber (교수 · Univ. of Chicago, MA · 일어—영어), Pierre Leson Gerber (교수 · Colombia Univ. · 불어—영어), John William Burton (교수 · Univ. of Mexico, MA. · 서어—영어), Antonio Glasse (교수 · Colombia Univ, PH, D. · 노어—영어), Monique Adam (교수 · 불어—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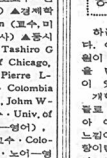
사임교수 ▲영어과 : 김석 (조교수 · 사망) ▲프랑스어과 : 김치수(조교수 · 전출)

「세우」창간
무역대학원

본대학 무역대학원 원우회에서는 원우간 정보교환을위한 취지로 뉴스레터 「세우(世友)」 창간호를 발행했다.

대학, 70년대를 보내며——

외대 · 외대인 이것만은 지양돼 <2>



허 세 욱

불신과 단절, 일회적 현상일따름
꽃도 기성세대 탓학
—학생 교수 신뢰 성숙을 위해

하늘이 유난히도 높아졌다. 아스라한 하늘끝에 영원이 보일듯하다. 저·영원을 한나려가는 길엔 풍만이 있어야한다.

개학이 되자 학생들이 제들로 들아왔다. 나는 명날아 어느 어행에서 들아온 느낌이다. 경주 (慶州) 가고 팔이만 학생이 정태(靜否)가 흐뭇킨 기와 돌장을들고 왔다. 이조 (李朝) 오백년의 풍우 (風雨) 는 죽히 절뎐을만한 기왓장이었다.

× × ×

내가 그에게 심어준 것은 사상의 이끼였는데, 그는 이끼 된 역사의 명태를 되돌려주었다. 비록 나이의 차는 있어도 우린 한가지로 통한 바 있었다. 우리들 두사람 사이론 아니라 이조 오백년, 그리고 저 하늘끝까지도 통해 있었다.

내가 기성세대로 불리우고 있다는 것을 기자의정학에서 발견했다. 하기야 저 남해 겨울, 어느 동반일에서 학생 하나가 기성세대를 신랄하게 박살내는 것을 들었다. 파자마를 걸치고 팔목을 어슬렁거리기나 게슴치레한 눈빛으로 두리번거리는 연미라고.

미리는 「교수님!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받는다. 내게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가 한결 다정한데, 차뜻이 직업을 호칭하는데 합이 없다.

거기다 「기성세대」 란 단어가 단순히 세포의 노화나 사입의 성쇠도만을 지칭하지 않고 보다 지저분한 불신과 저주가 끌려있는 것도 간과할 수있다.

숙직히 우리들 중년이상과 학생간엔 여러가지 갭이 있다. 프랭티시즘과 프레그머티즘의 의식상의 격차에다 농업사회와 공업사회의 전통의 유산이요, 조직에 익숙치못한 것은 자아의 고집때문이다. 그러기에 기성세대라고 중고등시하거나 서려의 낙오냄으로 보는 미는 어불수없다.

그런데 우리에겐 아쉽게 지기는 것이 있다. 기계화를 거부키 위해 남만을 지켰다. 획일화에 저항키 위해 자아를 지켰고, 광란의 현대를 식히려 고전을 지향한 것이다. 그런 일련의 지킴을 낙두요, 타협이요, 문약으로 몰아치면서 그 불멸에를 교수의 머리에다 씌우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렇다고 옛날의 사부(師傅) 처럼 긴 채찍도 우리에겐 없다. 세상이 편기증나게 변하면 가장 박자를 타고 흐름일 수 밖에 없고, 현대라는 곡에 (曲調) 엔 음식 서부른 얼뜨생이다. 이를 부능이나 부기며 오로 치부한다면 천만에 속단이다. 우리에게 지혜의 샘이 마르지 않고 역사의 는말을이 가리지 않는한 우린는 끝내 한심된 세대가 아니다.

하늘과 땅이 한 끝이고 고건과 현대가 한줄에 연결된 이상, 우리의 것은 아래로 아래로 스며들 것이다.

대화는 단필리가 아니고 잡시 막혔을 뿐이며, 불신이 본래 우리 사제(師弟)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밑어보지 않았을 뿐이다. 열면 흐를지며, 믿으면 통할지이다. 그러면 「교수」 가 「선생」 으로 환원될거고 굳이 신뢰란 말은 무용해진다.

하늘이 저토록 높으면, 나는 쥐를 들아본다. 어느 동자가 나를 따라 영원을 반나려 갈 것인가고. 이끼낀 경주의 기왓장이 내 책상에 놓였듯이 모두가 차근히 모일 것을 믿는다.

<문학 · 교수>

동시통역 대학원 입학식 거행
최학장「선구자적 긍지」당부

지난 9월1일 오전 10시 본대학 동시통역대학원의 개원및 제1회 입학식이 시청각교육원 208호실에서 거행되었다.

이시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개설된 본대학 동시통역대학원의 개원 및 입학식에는 최완복학장님 동시통역대학원장, 김홍배 이사장을 비롯 주한 프랑스대사, 클롭비아대사등 주한외교 사절과 산학재단사무총장 고범준박사등 다수의 내외귀빈과 신입생48명이 참석했다.

이날 본대학원의 개원 및 입학식은 국민의례와 설립취지발표에 이어 학장치사와 산학재단사무총장 고범준박사의 경축사가 있었다.

최학장은 이날 치사를 통해 원생들에게 「국제사회의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신과 긍지를 가지고 선구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대학원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타국제 국제회의에 필요한 동시통역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정부의 일부보조와 본대학 재정으로 운영하여 석사과정의 한국어 동시통역과 외국어 동시통역학과등 2개학과에 18개 전공분야를 포함하고있다.

안요한 동문(F)에 동문교수 성금전달

김홍배 재단이사장과 혜성육동문회 부회장및 본대학에 재직중인 동문교수들은 지난 7일 한국병인신흥회대표 안요한동문 (불어과 · 6회졸) 에게 전홍희 사연기금으로 성금 10만원을 기탁했다.

육 장학금 수혜자 664명
전체 학생의 약 16%에 혜택

학생회에서는 장학생선발규정과 장학금 지급규정원칙에 따라 지난 9월 3일 2학기 장학금 수혜자 총664명을 확정 발표했다.

작년 2학기 지급액에 비해 2백여만원 정도의 증폭을 보인 금학기 장학금 총액은 7천9백여만원으로 장학금 수혜자는 전체학생수의 약16%에 해당한다.

예년과 달리 각 1명씩 주어지던 학장장학금과동원장학금의 수혜대상자는 각 3명으로 늘어 외국어학과와 법정 · 상경 · 교육사회 · 2부학부각 학과 12인 5전원 : 비기정 (G · 2) 등 203명 ▲주 장학금 11만 5전원 : 김대식(EC · 4) 등 255명 ▲일반장학금 9만원 : 김현숙 (KE · 2) 등 36명.

◇예물을 교환하고있는 최학장과 정치대총장.

자유중국 정치대 총장 내방
본대학과 실질적 교류뜻 비쳐

지난 9월6일 구양순 (歐陽詢) 자유중국 국립정치 (政治) 대학교 총장이 본대학을 내방, 학장실에서 최학장과 요담을 가졌다.

김홍배 재단이사장과 혜성육, 노동선교수 (중국어과) 등이 배석한 이자리에서 구양순총장은 본대학과 「사실상의 교류」를 추진할 뜻을 「밝히고 본국에 돌아간 뒤 최학장을 초청할 뜻을 비쳤다.

요담을 마친뒤 최학장과 구양순총장은 상호간 기념메달 및 선물을 교환하고 함께 연수원과 어학실습시설등을 살펴보았다.

자유중국 3개 국립대의 하나로 문과대학에 8개 어문학과를 두고 있는 국립정치대는 본대학과 지난 15년간 교수 · 학생등 교류를 해 온바 있다.

한 관계자는 정치대와의 사실상의 교류가 실현될 경우 당대학 부설 동아연구소는 본대학의 지역연구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학사경고 47명

교무처에서는 1학기 학사경고 대상자 47명을 확정발표했다.

학사경고는 1학년생의 진급 최저취득학점이 24학점임에 따라 1학기 취득학점이 11학점 이하인 학생이 발생된다. 각 과별 학사경고 인원은 다음과 같다.

▲포르—1 F—5 D—2 R—4 S—2 J—2 I—2 MI—4 A—6 P—1 T—1 V—2 N—1 H—1 TU—2 SW—2 법정—4 상경—3 FE—1 KE—1

무역대학원이전
사회과학관으로

본대학의 동시통역대학원개설에 따라 대학원건물에 위치하던 무역대학원이 8월20일자로 사회과학관건물로 이전되었다.

일본문부성 장학생 선발
11일 본대학 연수원에서

문교부에서 주관하는 일본문부성 장학생후보자 선발시험이 11일 본대학 연수원에서 시행된다.

인문 · 사회계 15명, 자연계 25명등 총 40명을 선발하는 이번 선발시험에 본대학에서는 이중수 (일본어과 조교) 군 등 2명이 지원했다.

인문사회계열은 문학, 사학, 미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미술 음악 등의 분야와 이공계에 이학, 공학, 농학, 수산학, 약학, 의학등의 전공분야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이시험의 응시자격은 80년 4월1일현재 35세미만인 거포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조교이상 부교수이하이거나 공공 연구기관, 교육기관에 재직중인 자에 한한다.

국사, 국민윤리, 일본어 3개과목을 전형하는 이번 선발시험에는 144명이지원, 3.6 :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 중 최종 선발되는 33명은 80년 4월부터 82년 3월까지의 2년제정과 80년 10월부터 82년 3월까지의 1년6개월과정의 2개 과정으로 나누어 유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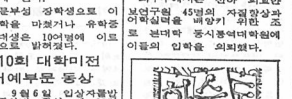
일본문부성 장학생으로 이미 유학을 마쳤거나 유학중인 본대생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10회 대학미전
서예부문 동상

지난 9월6일 입상자통보 표한 중앙미 주최 제 10회 대학미전 서예부문에서 본대생 전혜정 (EE · 3) 양이동상, 이은구 (H · 2), 이은영 (P · 4) 양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대학문화의 고양과 창작을 통한 대학인의 참여태 창달을 취지로 한 금년 미전의 수상작 출시회는 지난 9월6일부터 13일까지 연수원 극단현대미술전에서열리고 있다.

외교…연구원 위탁
동시통역 대학원에

외무부에서는 산하 외교안보연구원 45명의 자질향상과 어학실력을 배양키 위한 조로 본대학 동시통역대학원에 이들의 입학을 의뢰했다.



▲학내외 체육행사 만발—체력은 꼬마이란 신조여 나올싶.
▲장학금 수혜자 공고—신경전 (?) 끝에 안은 영광이니 길이길이….

시험문제 유출유감

▲종 지난 예기치만 공인회계사 시험문제의 유출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바 있다.

다행히 주관부처의 사전누설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의 요청에 따라 치안본부의 조사결과 문제의 사전 유출이 확인됨으로써 출제교수와 복밀한 관계에 있는 수험생을 무효로 처리함과 아울러 응시기회

자에게는 새로공인회계사시험을 치르도록기회를 다시 제공키로 결말을 맺게되어 외면상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는않게 되었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주장했던 결처럼 고질적 (?) 인 시험문제 유출의 근본적인 방지책에 대한 일련의 정책적접근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과 이를 계기로 회계사의 자질향상제도한, 시급하다는 자체내의 반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국가공인회계사시험이 다른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 맞먹는 권위있는 시험임을 감안해 볼때 문제의 누설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것은 국가고시의 사회적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킨 결과를 자초한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회계사 시험의 총 7과목중에서 1과목당 출제 위원이 2명씩이라는 제한도 문제이려니와 출제위원이 늘 몇몇학교에 편중 (偏重) 된 인상을 주고 있는 실정의 소이 (所以) 가 있고 일부회계사는 감사결과에 도장이나 찍어주는 정부가 비일비재하다는 어른이 있는데 이는 회계사를 가운데 기업의계무구조 (財務構造) 를 분석할능력이 결여돼 있다는데 기이타, 만약 이러한 문제가 국가고시의 고질적부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책임있는 당국의 근본적인 개혁 (開革) 수술이 없이는 문제의 해결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김형만 기자>

新入社員募集

曉星그룹의 母企業인
綜合貿易商社
曉星物産(株)에서
五大洋六大洲를 함께
누빌 人材를 찾습니다.

1. 採用部門 및 応試資格

採用部門	人員	応試資格
経営学 経済学 貿易学 統計学 会計学 法学 行政学 政治学 外交学 鉱産工学 金属工学 機械工学 外国語(英.佛.独.스페인語)	○○○名	가. 4年制 大学校 該当学科의 1980年2月 卒業予定者 및 既卒業者. 나. 兵役을 畢한者나 免除者.

2. 銓衡方法
가. 1次書類審査
나. 2次面接試験(1次合格者에 한함)

3. 提出書類
가. 自筆履歴書(一般様式)……1통
나. 名刺版上半身寫眞……1매
다. 最終学校 全学年 成績証明書……1통

4. 書類接受
가. 期間 : 1979. 9.17(月)~9.24(月) 17:00時까지
나. 接受処 : 서울특별시 中区 南大門路4街17-7(동성빌딩) 曉星物産株式会社 総務部 人事課 (TEL771-11)

5. 1次合格者発表 및 面接日時
가. 1次書類審査合格者発表 : 1979. 9.26(水) 17:00時 (当社현관게시)
나. 2次面接日時 : 1次 書類審査 合格者 発表時 公告.

6. 기타
가. 勤務処는 曉星物産(株)임.
나. 提出書類는 一切 返還하지 않음.
다. 履歴書 右側上端에 緊急連絡処(전화번호)를 朱記할것
라. 其他 詳細한것은 書類接受処에 문의바람.

綜合貿易商社
曉星物産株式会社

반문화反文化와 비판이론의 기수

—H·마르쿠제의 생애(生涯)와 사상(思想)

강 성 위

▲교양학부 부교수
▲철학박사

현대의 고도산업사회가 앞(盡)적 진보, 기술의 진보를 을가치화 시킴으로써 생산성 자체를 자기목적화(自己目的化)하는에 철저한 반기 (反旗)를 든 사상사상가 H·마르쿠제가 지난 7월29일 서거했다。 탁월(卓越)한 비판 정신으로 산업사회의 모순과 인간소외를 구명(究明)함으로써 60년대 미국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행동지침을 던져주기도 했던 그를 이해하는데, 일차적 방법으로 그의 생애를 살펴보고 철학사상에의 접근을 본고(本稿)는 시도하고 있다. <편집자주>

전체적인 거부로 사회변혁을····

사회는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어야 합니다(piecemeal engineering) 고 주장한 Karl Popper와 달서서, 사회는 급체적 급진적으로 변혁되어야 하나, 강력한 지배권력의 억압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거부를 해야한다(totale verweigerung)」고 주장하여, 1960년대의 학생운동의 이념적인 지도자로 군림했던 독일출신의 미국 철학자요 정치학자였던 허버트 마르쿠제 (1898~1979)가 지난 7월29일, 81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했던 그의 생애의 막을 내렸다.

여러가지 탄심적인 여건들 때문에, 그의 이념은 가끔 흔들 수 있었으나, 그의 생애나 사상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깊이 연구되지도 못했고, 따라서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그의 죽음을 맞아 간단히 그가 살아온 길과 생각해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역시 그의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위험시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학문적인 (철학적인) 관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않으려 한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주도

우리 그의 생애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마르쿠제는 1898년 7월19일 베르린에서 한 부유한 유태인가정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1919년부터 1922년까지 베르린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공부했고,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독일의 예술가소설」(künstlerroman) 에 관한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후 베르린의 한 출판사에 근무하다가 1927년에는 프라이부르크로 되옮아왔는데, 이때 이것에서는 뜻밖의 하이데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때였다. 마르쿠제의 저작집에 있 상학적—심리은원의—존재문제 인 요소들이 스며들게 된 것도 이때 부터였다. 그는 해결과 하이데거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던 것이다.

그후 1930년대초에 접스의 초기저작들을 철학적으로 연구하는데 최선적으로 참여했는데, 이 인력이 바로 그의 청주의 관적으로 공헌기도 한다. 그는 E. 프롬 Horkheimer와 더불어 프랑크푸르트의 「사회연구소」(Institut für Sozialforschung) 를 창설했는데, 이 연구소는 나치의 박해를 피해, 1933년 미국의 뉴욕으로 망명하여 활동을 계속했던다. 마르쿠제도 바로 이때에 독일을 떠나, 제네바와 빠리를 거쳐 1934년에는 뉴욕으로 망명하여, 윌밍니아대학에 설치되어있던 이 연구소에합류했던.

30년대에 쓰여진 마르쿠제의 글들은 Horkheimer가 발행한 「사회 연구지」(Zeitschrift für Sozialforschung) 에 공표되었으며, 이 글들에는 「비판이론」(Die kritische Theorie) 의 본태적인 사고의 요인들이 부연이 엿보이고 있다. 그는 1940년에는 미국의 국적을 얻었고, 1942년~1950년까지는 미국 전보기관의 파장직을 맡아 활약하기도 했었다. 1951년부터는 캔빈니아대학의 러시아 연구소와 하바드대학의 러시아연구센터에서 일했다.

1954년 그는 보란디스대학의 정치학교수가 되었고, 1965년에는 산타에고에 있는 캘리포니아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이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

시민시대 인간학으로 발전

초기에 헤겔에 관해 산책은 「삶의 존재개념」(Seinsbegriff des Lebens)을 헤겔의 존재론의 「근본적인 근거」 라고 규정하고, 그러면서도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 에 발표했던 Dilthey의 「역사성」을 문제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Dilthey는 마르쿠제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삶의 철학자」 이다. 즉 Dilrhey는 철학을 근거지를 때 「인간이 삶을 정신화할 수 없는 바탕」 으로서의 역사적인 현실을 밝아들이고 있다. 「역사적인 현실의 문제」(1931) 라는 논문은, Dilthey의 저서들에서는 철학이 독특한 논리학 덕택으로, 진리들이 아니라, 바로 그의 초기의 학문적인 철학력을 이었다. 마르쿠제의 후기의 저서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기의 맑스의 저방은 「존재와 시간」 (Heidegger의 Seinund Zeit) 의 정주를 겪게 되고 있다. 1932년에 출간한 그의 최초의 저서 「헤겔의 존재론과 역사이론」은 「이제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명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이데거의 철학력인 저작을 덕분이다」 라는 말로 그 서문을 끝맺고 있다. 이렇게 그는 하이데거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다.

이미 1968년에 하버르마스가 말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정신의 내용이라기 보다 일상적인 정치에 더 잘 알맞았던 마르쿠제의 조금한 저방은, 하부방 사이에 유명해져버린 사나이의 독자적이고 비역사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말았다. 이제 그의 죽음을 맞아, 우리는 그의 후기의 영향력을 근거지를 저서들에 담겨 있는 「재전체—철학력」인 백락을 더듬어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이다.

정통주의자의 정치에 반기

역사적인 유물론은 역사를 변천발력의 구조사(構造史) 라고 이해하는 것과는 반대로, 하이데거의 「역사적인 것」 (역사성) 은, 우리들의 존재방식으로서의 역사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역사로서의 현재가 어떻게 파악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존재와 시간」 은 주체의 역할이, 즉 역사적인 계속성이 급격히 단절될 가능성이있게 될 때에는 파악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마르쿠제가 실존주의의 기울어졌던 초기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요인들은, 후기의 저작들의 「바르트르주의」 에서 퇴상아닌다. 소비에트의 정통주의는 이런 요인들을 「무정부주의적」 인 것이라고 낙인찍었다.

마르쿠제의 생애와 사고에 있어서의 두번째의 위대한 시기는 호르크하이머와 「사회연구지」를 함께 만들때였다. 이 때의 마르쿠제의 논문들은 영광에 빛나는 「텍스트」들에 속한다. 1941년에 써어져, 거우 1962년에야 독일어로 간행되었던 「이성과 혁명, 헤겔과 사회의 발생」 이라는 책은 그 중간에 자기의 사고의 강토이로의 생물학주의만, 신프로이트학파에 의해 천박하게 되어버렸으나, 하나의 깊은 차원에 있는 사회론을 이룸이다. 신프로이트학파는 후의사회적 요인으로부터 문화적인 요인 들로 그 강조점을 옮겨놓음으로써, 그 원천과 정방성을 잃어지도 않고, 이미 탄압여지 있는<질병>으로서의 개인을 빌리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회의 뿌리를 두 동강내어버리고 만다. 」

억압된 통치에서 자유는 지배도구

····일차원적인간

이제 마르쿠제가 기술에 대한 하이데거 비판에 감명을 ; 받아— 「일차원적인간」 이나 후기의 여러논문들에서 항상 거듭 해서 다뤘던 테마, 즉 「주체인에서 사회적으로 매개된 자연」 과—장래에는가능할—주체로서의 자연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사회가 인간의 「자연」 (본성) 속에 자고를 넣, 이 자연은 사회적인 변천을 가지고 오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밑고 밖에 있는 대상화인 자연도 또한 생산아나 관리(管理)를 할 단순한힘자재 이상의 것이다. 「만다른 모든 남만주의자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 콘길지 남만주의자의 후기의 저작들은,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지를 않고, 그저 거칠만을 담고 있기도 하다. 많은 것들이 그저 개략적으로만 말해지고 있다.

예컨대 해방의 인간학과 그 정치적인 조건들의, 냉철하고 공공한 계획 (시도) 들은 아무런 실명도 되지 않음에도 남아있다. 학생운동의 역사가로서의 마르쿠제는 60년대 후반의 중점을 수 없는 시대적인 사조에서 「내재적인 개념」(immanenter Begriff) 과 같은 것을 얻어내려고 애썼었다.

이러한 일이 전문적인 철학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의 저작에다 시대사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한 사상가를 맞장의 글로, 그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내기란 어간 어렵지 않다. 그러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라고 쓰건 할상, 의견을 달리할 사람은 있는 법이다. 그러기에,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직접 마르쿠제의 책을 읽어주기를 바라면서, 우리말로 번역된 그의 저술을 소개해 둔다.

1. 「일차원적 인간」 (차인석역, 삼성출판사/One-Dimensional Man, 1964. 이 원서는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음)

2. 「에로스와 문명」 (김광호역, 백영사) .

◎마르쿠제 연보 (年譜)

▲1898년 : 7월19일 베르린에서 유태계 양친아래 태어남.
▲1924년 :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헤겔의 존재론과 역사성이론의 기초>라는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획득함.
▲1932년 : 제네바에서최초로<프랑크푸르트사회조사연구소>에 참가함.
▲1934년 : 미국으로 망명함.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와 프롬과 같은 사회 비평가와 친교를 맺음.
▲1940년 : <이성과 혁명—헤겔과 사회이론의 흥망>을 저술.
▲1955년 : 1950~51년까지 집필한<에로스와 문명>이 출간됨.
▲1964년 : <1차원적 인간>이 출간됨. 이 저서로 말미암아 미국 젊은이들의<뉴레프트>운동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되었다.
▲1979년 : 7월 29일 사망

정신분석학적 수정주의에 반기

—프로이드의 『생물학주의』를 옹호하기도

인간이 자연으로의 복귀상실····일차원적 인간

전체적인 거부로 사회변혁을 주장

····6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적 지도자

시대정신의 철학이 정치에 부합돼

1964년에는 고국인 서독의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또 1965년에는 베르린의 자유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었다.

하이데거의영향받고

마르쿠제의 저서들은 10권의 전집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간행되고 있다. 그 중「프로크하이머」와 「아도르」노와더불어 20세기의 정신학인 지도자들 중의 한 사람이며,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사회과학학인 사상을 주도해온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나 1960년대의 학생운동에 정치적인 화학과 역할을 한 그의 사상은, 그의 후기의 저작들이 아니라, 바로 그의 초기의 학문적인 철학력들이었다. 마르쿠제의 후기의 저서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기의 맑스의 저방은 「존재와 시간」 (Heidegger의 Seinund Zeit) 의 정주를 겪게 되고 있다. 1932년에 출간한 그의 최초의 저서 「헤겔의 존재론과 역사이론」은 「이제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명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이데거의 철학력인 저작을 덕분이다」 라는 말로 그 서문을 끝맺고 있다. 이렇게 그는 하이데거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다.

이미 1968년에 하버르마스가 말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정신의 내용이라기 보다 일상적인 정치에 더 잘 알맞았던 마르쿠제의 조금한 저방은, 하부방 사이에 유명해져버린 사나이의 독자적이고 비역사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말았다. 이제 그의 죽음을 맞아, 우리는 그의 후기의 영향력을 근거지를 저서들에 담겨 있는 「재전체—철학력」인 백락을 더듬어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이다.

시민시대 인간학으로 발전

초기에 헤겔에 관해 산책은 「삶의 존재개념」(Seinsbegriff des Lebens)을 헤겔의 존재론의 「근본적인 근거」 라고 규정하고, 그러면서도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 에 발표했던 Dilthey의 「역사성」을 문제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Dilthey는 마르쿠제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삶의 철학자」 이다. 즉 Dilrhey는 철학을 근거지를 때 「인간이 삶을 정신화할 수 없는 바탕」 으로서의 역사적인 현실을 밝아들이고 있다. 「역사적인 현실의 문제」(1931) 라는 논문은, Dilthey의 저서들에서는 철학이 독특한 논리학 덕택으로, 진리들이 아니라, 바로 그의 초기의 학문적인 철학력들을 이었다. 마르쿠제의 후기의 저서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기의 맑스의 저방은 「존재와 시간」 (Heidegger의 Seinund Zeit) 의 정주를 겪게 되고 있다. 1932년에 출간한 그의 최초의 저서 「헤겔의 존재론과 역사이론」은 「이제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명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이데거의 철학력인 저작을 덕분이다」 라는 말로 그 서문을 끝맺고 있다. 이렇게 그는 하이데거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다.

이미 1968년에 하버르마스가 말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정신의 내용이라기 보다 일상적인 정치에 더 잘 알맞았던 마르쿠제의 조금한 저방은, 하부방 사이에 유명해져버린 사나이의 독자적이고 비역사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말았다. 이제 그의 죽음을 맞아, 우리는 그의 후기의 영향력을 근거지를 저서들에 담겨 있는 「재전체—철학력」인 백락을 더듬어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이다.

하이데거의영향받고

마르쿠제의 저서들은 10권의 전집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간행되고 있다. 그 중「프로크하이머」와 「아도르」노와더불어 20세기의 정신학인 지도자들 중의 한 사람이며,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사회과학학인 사상을 주도해온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나 1960년대의 학생운동에 정치적인 화학과 역할을 한 그의 사상은, 그의 후기의 저

억압된 통치에서 자유는 지배도구

····일차원적인간

이제 마르쿠제가 기술에 대한 하이데거 비판에 감명을 ; 받아— 「일차원적인간」 이나 후기의 여러논문들에서 항상 거듭 해서 다뤘던 테마, 즉 「주체인에서 사회적으로 매개된 자연」 과—장래에는가능할—주체로서의 자연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사회가 인간의 「자연」 (본성) 속에 자고를 넣, 이 자연은 사회적인 변천을 가지고 오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밑고 밖에 있는 대상화인 자연도 또한 생산아나 관리(管理)를 할 단순한힘자재 이상의 것이다. 「만다른 모든 남만주의자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 콘길지 남만주의자의 후기의 저작들은,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지를 않고, 그저 거칠만을 담고 있기도 하다. 많은 것들이 그저 개략적으로만 말해지고 있다.

예컨대 해방의 인간학과 그 정치적인 조건들의, 냉철하고 공공한 계획 (시도) 들은 아무런 실명도 되지 않음에도 남아있다. 학생운동의 역사가로서의 마르쿠제는 60년대 후반의 중점을 수 없는 시대적인 사조에서 「내재적인 개념」(immanenter Begriff) 과 같은 것을 얻어내려고 애썼었다.

이러한 일이 전문적인 철학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의 저작에다 시대사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한 사상가를 맞장의 글로, 그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내기란 어간 어렵지 않다. 그러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라고 쓰건 할상, 의견을 달리할 사람은 있는 법이다. 그러기에,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직접 마르쿠제의 책을 읽어주기를 바라면서, 우리말로 번역된 그의 저술을 소개해 둔다.

1. 「일차원적 인간」 (차인석역, 삼성출판사/One-Dimensional Man, 1964. 이 원서는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음)

2. 「에로스와 문명」 (김광호역, 백영사) .

◎마르쿠제 연보 (年譜)

▲1898년 : 7월19일 베르린에서 유태계 양친아래 태어남.
▲1924년 :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헤겔의 존재론과 역사성이론의 기초>라는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획득함.
▲1932년 : 제네바에서최초로<프랑크푸르트사회조사연구소>에 참가함.
▲1934년 : 미국으로 망명함.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와 프롬과 같은 사회 비평가와 친교를 맺음.
▲1940년 : <이성과 혁명—헤겔과 사회이론의 흥망>을 저술.
▲1955년 : 1950~51년까지 집필한<에로스와 문명>이 출간됨.
▲1964년 : <1차원적 인간>이 출간됨. 이 저서로 말미암아 미국 젊은이들의<뉴레프트>운동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되었다.
▲1979년 : 7월 29일 사망

사설

언어 연수의 본산

동시통역 대학원 개원

개교 25주년을 맞이한 본대학은 9월1일 동시통역대학원의 개원을 기하여, 명실공히 어학수련을 지향하는 복수대학으로서의 면모를 한층 새로이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고도한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은 필연적으로 국제관계의 다변화를 재촉 (宰束) 케하였으며,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회의에 대한 참여도가 또한 그 이노베보다 제고되어왔다. 이같은 추세에 따른 고급인력의 수요는 비단 정치 경제 문화에 걸친 전분야의 투자를 요구할 뿐 아니라, 유능하고 다년화된 동시통역요원의 활약이 운명상의, 기간 (基幹) 으로부각되어 찾타는상실부정할수있는 현실이 된 것이다. 이에 73년 정부당국은 동시 통역사 양성에 관한 제반연구를 본대학에 의뢰한 바있어, 본학학은 타각처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일방, 정부당국과 소요예산의 확보를 논의하고 밖으로는 구미 (歐美) 각국의 동시통역 대학교와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체결을 서무르는 등 개원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하였다. 마침내 9월1일 역사적인 개원 (開圓) 을 보기에 이른 것이다.

본대학원의 설립목적은 무엇보다 전일 국제회의를 원활히 운영할 통역요원의 양성이 제1차적인 과제이지만, 각종 국제회의를 국내로 유치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도 있는 일이며, 이노날현가능국내수요를 충당하고나서 외국기관일 국제회의에 진출할 「인력의 투자와 기능」의 요청이라는 본기대로 자체하게 된것은 뜻깊은 일이다. 이분야 고급인력의수출로서 현에한 제기능을 만방에 빛내어 약진한국의 국위를 선양할 것과 아울러, 한국의국어 대학의 전학의 이념이 바야흐로 절실로 지닌고 있는 거보적 (巨步的) 발전으로 보아 마땅하다.

본대학원이 개설한 전공 구분은 한국어통시통역학과 7개분야 외국어통시통역학과 12개분로 총19개전공분야를 설치하였고, 금년 개원에 즈음 하여는 이중 12개 전공과를 개강케 되었다. 한국어——아랍어통시통역 전공과, 영어 ——아랍어 통시통역학과및불(佛)——서(西), 불(佛)——포(葡), 불(佛)——중(中), 중(中)——포(葡), 중(中)——서(西), 포(葡)——서(西) 등 7개 전공을 제외한 12개 전공 코스에 48名을 선발 취학케했고, 외국인 전문교수 6명과 내국인유명교수 10여명이 전임으로 위촉되어 배주 39시간의 실학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백당 대학원생들은 외국어 통시 통역 전공인 경우국내에서 1년간 18학점을 취득하고 국외의 연수기관에서 2년간 24학점을 취득하는 교과과정이 예정되어 있을뿐 아니라, 정치 경제면을 문화등 일반교양을 바탕으로 하여 전공외국어의 통역실기를 연마하는 피나는 과정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렇이 거치는 학습의 난삽도와 자체취투후의 능력과 소양에서 탄연 정예성을 인정받으리라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또한 교육기간중 프랑스, 스위스, 미국, 영국등 선진통역대학원과 긴밀히 제휴하여 일취월장하는 사거의 이론과 실기가 빠짐없이 섭취되어 수학의 자료로할 풍립 있은 풍론이다. 이 외에도 외무부의 위촉으로 4년의 의학생이 영·불·서어를 연마코자 본대학의 수학코스에 들어와 있음을 감안할때, 외국어 대학의 내실화된 교육련광은 틀림없이 국가사회의 인재풀에 양하기에 충력을 경주하는 계제에 도달한 것이다.

앞으로 본대학원이 소기의 목적을 향한 현활한 은혈이 지속될 것을 기림받은 풀뜯, 대망을 품은 학생들의 앞날이대륙 넓고 대륙 밖에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개원에 이르기까지 온갖 심려와 노고를 기울인 관계자 여러분의 업력을 높이산양하여 앞으로의 전부를 빌어 마지 않는다. 동시통역대학원의 개원을 경축하며, 인어연수의 총본산이될 것을 축원한다.

미네르바

▲계절이 바뀔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자연의 섭리(攝理)만 참으로 신기하다. 자동차와 사람들의 부대낌속에서 유난히도 무덤고 짜증스러웠던 울어름은 또, 넘어가는 밤때에 쫓겨 황망 (慌亡) 히 자리를 피하는 감 (感) 마저 든다.

헛그제 보낸 백로 (白露) 에 질맞게 신선함을 더해가는 뜨락의 아침이슬은 가을을 맞는 사람들의 가슴속을 차분히 씻어주는데 다시없이 좋을것같다. 마불어 그들의 폐부에 남아있는 애틋한 지난 여름의 기억들을.

▲신학기의 교정에는 낯 익었던 엘엘글들이 하나 둘씩 돌아와 재회의 기쁨을 나눈다. 스승과 제건한 제자와만 남아나 선부벼 간의 친지한 이야기가 어우려 지는 것은 보는 이를 흐뭇하게하는 정겨기 만들었는 모습이다. 그런데 그들의 그림속에 남아있던 친구와 대학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엘엘글들은 부르는 피로와 안도가 교차하고 있음을본다. 그것은 그들이 반추 (反芻) 하는 지난날의 여러가지 어름의 기억이 울어름을 지나며 빚은 거연 (蘊蓄) 적 산물이라고 말수도 있을 것이다.

▲문득 우리가 챘으며 한 길은 지난 어름의 몇가지 기억에서 배제되었다는 생각에 망폭스럽기까지 하다. 고맙을것은 자식에게 주는 어머니의 정이 자식의 성장 (成長) 을 불구하고 고박을 갖이하는 사랑임을 아는 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겨다보며 희비를 갖이하는 어린아이의 단순성을 삼사방의표로 인정하는데 주저지 않을 것이다.

지심과 이웃에대한 사랑과 정의 (情義) 에 대한 목적고지 (目的高地)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원초적인 감성은 어릴때 어머니와 누이와 가족에대한 무의식적인 사랑에서 빚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어름 우연히 마주친, 도시의 한길에 멀어져 시골은 제순화한 솔이가 지나치는 행인들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도시의 새벽거리를 지나오는 맑은 가을을 느끼는 지금 어름의 기억을 심사리 지울 수 없는 것은 단순한 계절에의 미련때문만은 아니다.

냉정히 따지면, 항상 그별꽃이 도대체 어름이 우리에게 준것은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그에 대한 기억에 어김 (錯誤) 스럽게 접착하게 굴곡 하는 것일른지도 모른다.

어름을 만든 자가 누구일지라도 그 기억에 관한 한은 가을이 다 요기점에 정리를 해두어야 할 것 같다.

<경>

300만원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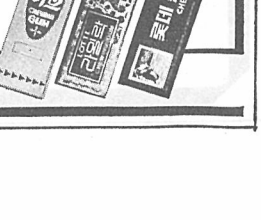
대학생들의 껌하나에 얽힌사연을 모집합니다.

롯데껌20년 롯데껌은 대학생여러분과 거의 나이가 같습니다. 대학생여러분이 지성과 젊음의 대명사이듯 롯데껌도 껌의 대명사로 인정받고 있읍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만든 롯데껌 하나하나가 지난 20년동안 젊은이들의 생활속에서 어떤 사연을 어떻게 엮어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 곳엔— 바람에 날리는 풀잎하나, 길거리에 당구는 조약돌 하나까지도 애틋한 사연을 만들어 냅니다. 껌하나, 비록 작지만 사람의 손길에서 뜯어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껌하나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가교일수도 있고 한순간의 좋은 친구가 될수도 있읍니다. 껌은 세상에서 어든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으면서 그나름대로 갖가지 사연을 만들고 있읍니다.

300만원고료— 작은 사물 하나에도 애정과 의미를 추구하는 대학생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읍니다. 어떤 사연이라도 좋으니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껌에 얽힌 이야기를 보내주십시오. 3백만원의 고료를 준비했읍니다. 대학생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응모요령
1. 200자 원고지 100매내외 제한 없음. (주소, 학교, 연령기재할 것)
2. 껌과 관계된 이야기라면 내용, 형식에 관계 없음
3. 접수기간 : 9월6일~9월30일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치 않음)
4. 보낼곳 : 우편번호 140 서울·용산구 한강로 98-6 롯데제과 홍보실

시상
1. 시상내용 : 금상 1명 원고료 50만원, 은상 5명 원고료 각10만원, 동상 50명 원고료 각 5만원
2. 수상작은 당사 광고물 발표하고 책자로 발간예정
3. 원고의 소유권은 당사에 있음.
4. 발표 : 1979년 10월15일

롯데제과

외래와의 접목 끊임없는가 탱자잎가

제도와 인식의 정착을 점검한다

에필로오그

어언사태에 걸쳐 연재했던 「외래와의 접목—끊임없는 탱자잎가」 시리즈를 마무리 짓는다. 물론 문제의 핵을 적확 (的確) 하게 구명 (究明) 하지 못한채 논리전개에 있어 각 시리이즈마다 일관성이 다소 결여됨세마 부리를 지어야 한다는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할것 같다.

해방이후 30년이란 세월을 종합으로 오토 내리며 며스를 더는 작업은 농혈부족이란 당연한 변명과함께 출발했다. 그러므로 그동안 언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등에걸쳐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제도와 인식의 정착이란 측면에서 살펴수밖에 없었다.

이 시리이즈의 제목 「외래와의 접목」이란 제목에서 주지하듯이 오늘의 한국사회가 원초적으로 전통과 근대화 (서구화) 의 갈등속에 속해 있음을 가정해 보았다. 자본이념로 전문가의 견해를 모아 보았으면 물론 가치있는 기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좁은 지면을통해 학생 기자 나름으로서의 시각으로 설실하게 한가지씩 지적해 나갔다는데에 의의를 찾고싶다.

우리가 크게 「외래」로써 급했던 것은 미국문화권과 일본문화권 이었다. 오늘날 즘게는 「외래인」이, 넓게는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아노미」 현상의 근본원인은 바로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중심문화권으로부터의 문화이식 (移植) 현상에 기인한 것이라고본다. 특히 식민지 통치하에 이식된 미국 (서구) 의 제 구성이나 가치들은 식민통치자의 수요에 의해 채곡, 굴절해 해방이후 반연한 미국병과 뜩박하게 섞여 오늘날까지 아직 정산되지않은 모습을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들의 습관·의식등 가치체계 가운데서 플러스 개념이 아닌 마이너스 개념들이 먼저 정착해 관을치고 있다는사실이 문제를 제기할만한 가장 큰 소지가 됨을 지적하려고했다.

농혈의 한계와 상황제약 박등요로 불만족하고 다소 산만하게 이기적을 엮어오는 중에도 한가지는 분명히 주장짜어졌다고 본다. 즉 우리사회의 변현과정은 원연해요로 외래와의 긴장과 저항의 요소를 일깨워 놨었다. 그러므로 근대화를 지향하는 오늘날 우리사회의 외래이식에 의한 진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정치·경제등 「제도」 적인 측면에서 이해와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 걸음 더나아가서 보다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는것은 그러한 「제도」가아니라 「사람」이라는 결론이 명백히 드러났다. 즉 어떤 사회에 있어서나 근대화과정에서의 외래 수용태도에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문제를 어떻게 분해하는간에, 사람 자신이 달라져야한다는 기본 명제에서 이탈할수가없다. 급격한 문화공룡화 (巨龍化) 현상에 파묻는 개체로서의 사고, 경직 즉 인식 (심리체상태) 이 그런환경과 동반자의 관계를 형성치 못하고 있음을 발견해 냄수밖에 없었다.

특자는 American Way-of life가 지배적 생활양식이 되면서 우리 사회의 2중구조화는 더욱 심각해졌다고도 이야기 한다. 그러면 서 American Way-of life가 내포하는 정 (正) 의 속성보다 부 (負) 의속성이 먼저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렸음가, 국민복요로 선진국문화에 우뚜랑한 측면가지 보일수 밖에 없는 것은 우리사회의 급격한변동이 초래한 문화기반의구조적 취약성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들의이것은 좋고, 이것은 부조건 나쁘다는 폭력, 양단논리가 지 심게 통장한다. 따라서 문화흡수에있어 국수주의 아니면 절대숭배주의로 흐를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며 이윗바기 보다 문제제기의 방법이었다는데 의의를 찾고 있다. 문제해결키지 책임질수 없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그를 위해서는 관련학있는 특자제이론의해비관과 등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 작가의 말을 변형해서 결론 짜으로 특자 「외래문화는독 그들의 「굴」을 들어와 우리도 「굴」로써 키울수 있다는 신념조차 꺾어버지고 경시되어 버림은 안타까운 일이다.

시민사회의 형성이라는서 구사회가 겪은 역사적 과정을 뛰어넘어 산업사회에 이른 오늘날의 우리사회가 겪는 진통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민사회라는 바람을 찾아 나서는길이라고 생각된다.

전전한 시민사회의 바탕위에 이식되는 모든 외래문화는 한 사람의 개체에 의해서라도 자연스럽게 어과 선택되어질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시리이즈는 본질적으로 문제해결의 차원

> 우리 문화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문화흡수에 있어 국수주의 혹은 절대숭배주의로 흐를 수 밖에 없다.
>
> 그들의 굴을 우리의 굴로서 가꿀수있다는 신념과 풍토조차 희박해지고 경시되어 버림은 안타까운 일이다.

확충시급한 신간도서

—도서관 장서구입등 실태 진단

오는 10월20일로 신축개관 1주년을 맞이하는 본 백학 도서관의 개관 정초의 의도는 백학도서관으로서의 학생·교수의 연구활동을 위한 자료구비나 그 여건조성이 주된 기능으로 지적됨은 틀림이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성과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도서관 장서를 중심으로 하여 질보·보관될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여 그의 실현이나 미비점 시정이 선결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75년도 7월말 현재의 통계에 따르면 본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총수는 15만 5천여권으로 양적인 면에서 보통30여만권을 웃도는 타대학도서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질적인면에서는 18개 외국어별로 원서가 구비되어 있으며, 특히 영문원서는 6만 2천 2백61권으로 국문단서적 4만 9천 5백31권 보다 많아 본대학의 교수실에 비추어 손색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78년도 본보에 게재됐던 원서대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서대출률이 예상외로 저조하여, 오히려 국문단 서적이 전체 대출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원서열람이 저조한 것은 외대생의 전반적인 원서경험 정도에 그 근본적인 책임을 돌릴수 있겠으나 수차 지적되어 오고있는 이런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커리큘럼상의 대응책 강구가 요청되기도 한다.

원서열람이 저조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문단 서적의 열람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때 원서열람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국내서적 (혹은 번역판) 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에 현상적으로 부합할만한 도서의 양적, 질적 증가를 도모해야 할것이다.

79학년도 1학기 (6월말 현재) 통안의 총 도서수입량은 6천27권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구입량은 학생 반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머지는 기증도서로 충당하거나 교수가 직접 필요한 서적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78년도 본보에 게재됐던 원서대출률조사에 따르면 원서대출률이 예상외로 저조한 것은 학생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구입방법은 도서의 선별기준이 고정되기 어려 지식 정량을 잃고 도서가 결핍되는 경향을 보일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 예초에 도서구입 예산이 학부별로 책정되어 있어, 도서구입의 자율적인 타당성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겠으나 일방적인 교수추천은 추천교수의 선별기준이 곧 도서의 구입기준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쉬운 형편이다. 도서 추천권이 교수에게 전적으로 주어지고 있어서 학생들은 단지 이에만 의존해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구입희망도서신청서」를 5~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면에서 그 효율성의 문제는 해외 주시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느 제도이건 일장일단을 있겠으나, 도서열람자를 학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실을 볼때 도서구입제도는 구입 도서선정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고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전공분야의 서적을 차치하고라도 일반 교양도서를 구비하고있는 폭제성은 보다 신속하게 새로운 서적을 접할수 있다는 점에서 도서열람률이 가장 높은곳이다. 그러나 이 폭제성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중 가장 최근에 출판된 서적이 78년도 7월 발행의 서적이었으며 79년도 출판물은 단 한권도 구비되어 있지 않아 그 재정보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79년도 상반기 출판도서가 모두 9천 2백여종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신간도서의 도착과 기증력결여현상은 새로운 지식과 교양을 골랑이 공급받아야하는 학생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수가 없는 실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가 선결될수 있다면 과제실태에 신간도서를 설치하여 신간통화의 접촉기회를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도서관과 학생간의 친지를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키주는 촉진제가 될수 있을 것이며, 도서관도 본래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인무기자>

◇현재 도서관과제실에 비치된 서적중 가장 최근 출판된 서적이 78년도 7월 발행이었다.

원서 대출률 저조현상도 문제

신간코너 설치 고려 있어야

낙관도 비관도 불허할 이란의 장래

인터뷰

◇이란방문하고 귀국한 김 정 위(이란어과)조교수

김정위조교수는 지난 7월 출국하여 아직 중앙상태에 있는 이란에서 40여일간 체류한 다음 지난 9월 귀국했다.

—그동안 체류한 지역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및 이스파한, 시라즈등 주요 세도시에 머물렀다.

—보수로서 현지에서 보고 느낀 이란의 정경 (政情) 및 사회상 (社會相) 은 어떤지

▲현재의 의신보호하는 밑 밑 나름대로 안정을 회복하고 있었다. 이란 국민정자체가 영웅을 만들어내고 그를 신격 (神格) 화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호메이니」라는 하나의 영웅을 낳은 것 같다.

만년대 지식인들에 의하면 「호」 체제가 곧 (2, 3월~2, 3년) 무너질 것이라고, 중구난방 (衆口難防) 이었다. 그러나 심상인측 루트트즈의 반란군을 진압한 루지역혁명위원회 (Committee) 안에 혁명군 (「호」의 사병) 을 개입시켜 더욱 공고히 기틀을 다져가고있었다.

—「호」 체제의 제반정책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란은 거의 전 지역이 남·북으로 나뉘어 남은 서민층, 북은 부유층이 살고 있어 빈부의 차가 극심하다. 이란의 상류층, 지식인, 학계에서는 팔레비시대보다 많은 불만이 있었다.

「호」의 정책이 과거 (팔레비시대) 의 상류계층위주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혜택을 베푸는 것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서민층으로 부터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었다.

—현지에서 본 이란의 장래는 우리의 이익과 관련하여 어떻게 느꼈는지.

▲「호」가 적극 중립을 표방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들은 미·소양국민을 배고는 범죄 저리시하지 않는 것 같았다. 현지 교민들은 과거 팔레비시대때 보다 현지의 (13,000명에서1,000명선으로) 줄어들어 이란전체에 대한 불금시대는 지난것으로 돌이킨다. 그러나 그들의 많은 종합해 보면 아직 「Silver」 시대 수준까지는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란내의 좌·우익의 동향은.

▲국내 좌익세력이 우세하다 하여 그 나라와합계 「지구의 허리」 지역에 속하는 이란에도 그 파급효과가 우려된다. 팔레비의 재독위는 난방 (難望) 하나「바크티아르」가 2, 3년내 다시 들아올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 우리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이란의 장래를 점쳐본다면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불허하고 있는 것이 이란의 정경 (政情) 이다.

—오랜시간 감사합니다.

이란진출 황금시대는지나

외래와의 접목 연재를 읽고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잡은 지면, 그것도 열흘이라는 유예없는 단위로 외래학보를 만들어 내고 있는 편집진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보내주고 싶다.

그동안 프롤로그부터 일곱차례 연재된 외래와의접목 시리이즈를 읽고 몇가지 느낀 점이 있어 외대학보지면을 통해 감히 지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시리이즈, 특히 학생기자들 손에 엮어진다는의미를 독자로서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학면에 이러한 성격으로 연재되었던 「아웃사이더」 기획도 그러했지만, 기자의 시각으로서 논조를 성실하게 이끌어 나간다는 점은 대학신문으로서 가치있는 일로 생각되어 학술 점검한다고 볼수있는데, 엄밀하게 이 부제와 부합될려면 메스크에 앉아 쓰는 기사가 아니라 제도와 인식이 표류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나면 장을 찾아 심층 취재에 의한 기사가 되는게 어떠했을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시리이즈를 통해 불붙 「외래」 라는점제에 대한 고찰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하여 더러는 전혀 시리이즈 제목과 관련없는 이야기도 견강부회 격으로 해석한 오소도 발견할 수 있었던 일은 아쉽기조차 하다.

외래와의 접목이란 측면은반드시 외대인의 손에 의해 고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보았다. 특히 「세계」를 표방하는 외대인이 겪고있는 부동 (浮動) 의 심리상태는 반드시 기록지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리이즈 연재중 일찍 비판의 견해를 지면을 통해 표명하지 못한 점은 독자로서 마땅히 책임을 느끼고있다. 외래문화의 수용에 있어 문제의식 각성은 이 시리즈를 읽기 전에는 별로이 느끼지 못했던가 싶도 있는것 같다. 어쩌튼 많은 독자들의 각성있던는을 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 더해 고맙게 생각하며 기자여러분들의 정진을빌어 드린다.

김광훈(E·3)

독자의 소리

점심시간 고려 있어야

근 3년만에 다시 캠퍼스에 들어와 입학하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학보모습이 많이 바뀌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학생들의 하루생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강의시간표에 큰 허점이 있는것같아 독자의 소리난을 빌어 이의 시정을 건의하려고한다.

점심시간이 없음으로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합리적이고도 기술적인 시간 배열이 아쉽다고 하겠다. 강의시간이 4, 5, 6교시에 연이어 배정되어있을 경우, 학생들은 물론 교수님까지도 점심을 거르게 되어 있고 서는 시간을 이용한다해 더라도 심상인의 「시간으로는 분명히 부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수님께에서 중간 휴식을 취하지 않고 80분 정도의 속강을 강행하고나서 2, 3십분의 틈을 빌어 식사를 하는 편법으로 굶겨지기가 천경인것이다. 이렇게 굶세하게 점심시간을 마련할 바에는 차라리 점심시간을 탄력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잡아야 하는 점이 낯직않을가하는생각이다.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느니 위장을 생각해서 아예 점심을 안먹기로 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형평상 이러음이 취해도 가는 하겠지만 모년을 공리해서 학생들의 건강과 부리없는 수업진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배정할 필요가 있지고 본다.

이 기 우<F·2>

관계자의 말

이에대해 신익하 교무처장은 점심시간이는경우 2학기말에하고시간이 늦어져 마지막 수업등에차질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간표작성 과정에 있어 최대한 점심시간이 주어지게끔 작성되고있고 일부학과나 학생들이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점심시간을 마음이 배정할수는 없으나 앞으로도 시간표작성 과정에 있어 최대한 고려를 때 작성할 것이라고말 했다.

지혜의 여신 얼굴을

○…지난호 본보 크로니클자에 중 불륜사나운 캠퍼스 해프닝 (?) 을 과장히 지적한바 있는데,

아직 그러한 사태가 근절되지 않고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 얼굴을 공공연히 주석 (酒席) 으로 어지럽히는가 하면, 저녁이면 댄퍼스 구석진 곳에서 낯 뜨거운 일까지 볼 수 있다고.

사건의 장본인이 출산조가 분명한 즉, 이를 말리는 수위아저씨를이 봉변을 당한 사례까지 있다고 하니 오호 (嗚呼) 라! 출산조, 자애 (自愛) 할지다 그려.

○…안쓰러운 를가 인상여파에도 불구하고 말음직스럽게 제갖을 고수하던 구내분방의 커피값이 꾸준한 인상설을 뜻연여했던지 삽박 인상을 단행했는데, 인상폭이야 어쩌트 보아주더라도 인상폭이 30%선을 유지해 결코 퍼지않은 인상률 이란 느낌을준다고.

그런데 인상과 더불어 커피잔도 바뀌고 양도 많아졌다니 그 정도 인상률 쾌히 받아 들이기로 (?) ….

○…지난 9월1일자 본보 크로니클자에 게재된 본대생의 농촌봉사에관한내용이 본대의려지와는 달리향 (鄕) K시골읍에 선의의 피해 자가 퍼지 않았는 데,

내용의 취지가 특정 서클과는관련없이일부 소수사람들의 그런 사실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려한 것인즉, 일종 간접을 면제 「오로지」 봉사에 전념한 전체 대원들에게 오해의 파장이 전이간 일은 크로니클자도 안스럽게 생각하고있는 점 많아 거금 성실한 전체 봉사대원이선의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불상한 일로서본의가 아니었음을명백히 밝혀두오.

그동안보내준 질책과 원성 (?) 은 본보에 대한 관심과 성원의 뜻으로 받아들여 크로니클자 새삼 무거운 책무와 의무감을 통감, 정진을 다짐해 보는 기회로 삼기를 작정.

○…머질간에 걸쳐 학내 모 서클과 효학단이 마련한 수재민 등기 의연금 모집에서 학생들로부터 28만여원이 모두어졌다고. 사흘간인 입교에 미여해 으로 수해의참상을 몸보한 노력이 주효했던지 모금이 끝나 끝은 「전의대인 어려분 그동안 의 땀조에 감사합니다」 고 더욱 복필한 공고를 보고 크로니클자도 효첫, 조수 직원등 학교에서 의연금으로 기탁한 130여만원과 함께 신문사에 기탁했다는 소식인데 불경기 속에 보여준 의대인의 정성으로 경가필리한 일.

○…지난주 토요일 본대학 「메인 스타디움」에서는 태아년 「의·고전」 아구게임이 벌어져많은 관중들이 운집.

양팀 모두 아마추어 아구 동호인들이 모여 지마다 벌의대, 빕고대를 포방 유니폼 입체까지 갖추고 그럴듯한 게임을 벌였는데, 그중만 몇차례 친선 게임을 「홈 앤드 어웨이」로 가진 양팀, 지금까지의 전적이 불명하게도 본대학 팀의 - 전적 (全敗) 라 이를 악물고 연습한 결과 이날 드디어 (?) 7:5의 쾌거를 기록, 다만 운동장이 비좁아 경기를 더 속행하지 못해 「운동장사정불드게임」으로 끝나 다소 아쉬움을 남기기도, 어쨌든 게속정진해 우위를 고수하시도록, 운동부 창설의 봉이 불어 올지 누가 알겠소.

그럴듯한 한판 승부

서, 중남미 문학이 본 한국시

—민용태교수 강연초

민 용 태

○— 지난 9월5일—○
○—서울파학관 3204—○
○—호여서 2학기제—○
○—1회 특강이 있—○
○—었다. 본보에서는—○
○—"한글시에 대한—○
○—스페인 언어권의—○
○—반응"이란 주제—○
○—로 그날 특강을—○
○—발앞면 민용태 (에—○
○—스페나어과) 조교—○
○—수의 강연내용을—○
○—간추려 싣기로한—○
○—다. 《편집자주》—○

지금까지 스페인어문학권에 소개된 한국 문한은중국, 일본 문학에 비할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양적인면에서 빈한한 실정이다. 한 마디로 1968년 마드리드에서 출판된 김현승 교수의 『한국시』(Poesia COREANA) 와 1977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나온 출얼 『한국 시선』(VERSOS COREANOS) 이 있을 뿐이다.

이밖도 대단치 못한 우리 문학의 전자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앞서 두 차례에 걸친 한국시의 소개는 수 많은 서중남미 문학평론가들의 주의를 끌었던바 『한국시』(Poesia COREANA) 는 현 광민 한림원장 다마소·알론소 씨의서문과 함께 스페인 시인「라파엘·모랄레스」의 격찬을 받은 바 있으며 『한국시선』(VERSOS COREANOS) 은 스페인에서 『프란시스코·이푸자킨』 박사의 두 권의 평론은 물론 『아도니이스』시 상의 상임위원 「루이스·히메네스·마로또스」씨, 카롤로스·푸로시아노 시인의 는평 등 대단한 평단의 여론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살·아리 스메기에따」 콜롬비아의 「오스칼·에체베리·메히아」칠레의 「안드레스·사베아」모로코의 「아르만도·네온」이스라엘의 「조지·플레스코프」그리고 미 캘빈대학 대학교 서·포도아의 파장 필립·심비 박사의 긴 평론가지는 치면 우리 시가에 상 외로 세계 서반아 문화권의 대가들의 시선을 끌었던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이상 십 여 평의 평론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시는 그 주제 면에서 자연을 묘사한 시가 뛰어나다고 외견상 모으고 있다. 특히 「인두한인」 박사는 마드리드 일간지 「인포르마시오네스」에 발표된 그의평론에서 『한국시의 자연과의 교감은 서양의 그것보다훨씬 섬세하고 예리한, 감성의 표현』이라고 칭찬을아끼지 않고 있다. 이들 자연을 테마로 한 우리 시중에서는 『광조가』 부병씨를의 시조 『내 집이 길씨앙하여…』 『솔밭에 눈이 소리…』 『10년을정하여…』 등과 최 지원의 한시 「가아심」이 주목을 끌었다. 칠레의 시인 「안드레스·사베아」의 주석을 보면 「이런 시들은 인간의 마음과 자연이 벅 없이 부딪하게 서로 흔연일체가 되어 시어는 그대로 인간과 자연의 사랑의 결정체로 환원하고 만다고 고 평하고 있다.

니…』 『10년을정하여…』 등과 최 지원의 한시 「가아심」이 주목을 끌었다.

다음 우리 시의 수사법에서 뛰어난 것은 이미지의 활용이라는 점에 외견을 모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광인의의 『동짓달 기나긴 밤…』 『이 몸이 시어지어…』 현대 시인으로는 김광섭의 『비가 개인날』 황금찬의 『간이역』 김종길의 『산정 부근』 유치환의 『깃발』을 들고있는데 특히 정하의 『깃발』은 서로 번역이 다른 김현승교수의 번역에서도 극찬을 받았던 작품으로 우리 현대시의 자랑스러운 작품의 하나임을 재인식시켜준다. 이 시에 대한 「인두·타인」 박사의 평인각 『바람에 펄펄이는 깃발에 대한 신비스러우리만큼 굳 집약된 구상력인 표현으로, 시의 힘을 입어 피살아난 평이상학적인 깃발』이라고 평한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히메네스·마르또스」씨의 우리 시의 이미지 사용에 대한 해석이다. 씨는 우리의 이미지의 사용법은 『자라리 수사학에 근원을 두었다기 보다는 옛부터 동양에서 추구해온 일종의 마술이나 문장법 자은 심령전환법에 가까운 표현 형식』이라고 보고있으며 그 외에 눈에 드이는 수사법으로 대조법 등을 들고있다.

기타 이들 평자들에게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는 김상용의 『남으로 창을 내겠네』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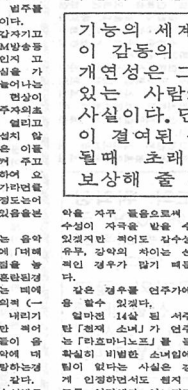
한국고전시 상당한 반향일으켜

자연을 묘사한 시와 수사법 격찬받아

한국시에 대한 서어문화권의 평론활발

서어문화권에서의 한국시의 평가

자연과 동양의 전통적 이미지는 다른 서양과는 표현과 수사법의 독특하므로 서양의 자연의 교감에 근거한 에 향상되고 있다



신간을 읽고

「흰 까마귀의 수기」 이범선교수 소설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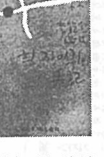
「현대문학」지에 18개월간 연재되었던 이범선교수의 장편 「흰 까마귀의 수기」<여원문화사간 1,500원>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구태여 「자신의 인생을 총결산하는 의미로 이 작품을 썼다」는 작가의 말을 빌린지 않더라도 이 소설에는 저자의 인생관이 투명하게 결정되어 있음을 느낀다. 이 소설은 주인공인 한 사람의 발전을 작중화자로 등장시켜 주인공 「흰까마귀」 파주면인을을상해 「인간」을 재관찰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저자는 자기의 논리를 독자에게 결코 강요하지 않는다. 이미 50년대에 발표한 「학마을 사람들」, 「피해자」, 「오발탄」 등에서 사회에 대한 불신과 증오의 결론을 저항에 두지 않고, 독자의 관단에 맡겨짐이 이작품도 결실한 문제를 다만 제기하는데 그쳐 독자의 부탁은 따라서 줄어 들수밖에 없다.

그러나 작가가 환기시키는 문제의식에 우리는 시종 동참자(同參者)가 되어 있음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가. 그것은 인간에라는 지고 (至高) 의 「휴머니티」 때문이다. 저자는 모든 일에 소극적이지만 자기 직분을 충실히 지키는 소시민을 통해 양심과휴머니티를 언제나강조한다.

이책에서도 「보조」가지는한해 쥐도 있다고 그 전도 리지만말 아달라고 소시민의 사회에 던진 말씀을 아내가 대변하고 있다.



이제일 사회에 대한 불신을 임간에 대한 애착과 신뢰로 지자는 자연스레 전화 (轉化) 시키고 있다. 이 소설의 주요한 인물인 철형과 교수진구를 통해 작자는 그 산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 증명은 살오의 논리가 아닌 사람의 논리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감심시켜 준다.

광속에서의 개인의 본질조작 을 넘을 수 없을 인간 일상의 실비성 (眞摩性) 의 소유자인 주인공은 자기의 지위와 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회상하며 문득 「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어느날 사회와의 간을 잡고 만다.

기왕에 발견이란, 한 사회의 상징적 지위를 놓고 쓰여진 단편 (이것은의 가면의 음, 최창학의 낙조) 이 있지만 이 작품은 원로 작가의 글다운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결국 이 작품은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문학사회학 이론에서의 소설적 미학을 간직한 「보편성」때문에 오늘날 점점잊어져가는 많은 소설들 가운데 고전적인 선택되어 읽힐 개연성이 가장 많은 글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규>

음악계 빛나다

○—이성과 감정의 중간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신적 면상의 하나로서상수성 (感受性) 이란 요소가 있다. 이 감수성은 인간이 예술전반에 대한, 개체로서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성과감정의 배후리에 넣지 않고 특별히 감수성이란 범주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들어 감정기고 전음악회마든지 FM방송등이 대중화되 카급인지 고전음악에 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는 은 무척 반가운 현상이다. 해외 유명 연주자의초청 연주회도 자주 열리고 각종 연주회가 성실치 않게 열려 미숙 많은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 못하다. 그러하여 요즘은 웬만한 애호가라면 음악 음악의 게보정도는어 떨어입게 의우고 있음을본다.

○—그런데 문제는 음악 「을」 아느냐, 음악에 「대해서」 아느냐 하는 점을 놓고 볼때 적잖이 혼란된경우를 많이 만난다는 데에 있다. 이문제는 일의적 (一義的) 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힘겨운 일이지만 적어도 많은 「애호가」들이 음악을 무시한채 음악에 대해서만 유식을 자랑하는경향이 없지 않은것 같다. 즉 본질적으로 감수성에근거한 한 개인의 음악 이해가 아닌한 모든 설명과 상식은 음악이란 예술의본체의 속성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닐가.

○—저나된 속단일지 모르지만 고전음악을 듣고느끼는 감동은 표현될 수없는 것일 때라야 정적한감동이 될 것 같다. 같은음악을 자꾸 들음으로써 감수성이 자극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감수성의 유무, 강약의 차이는 선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같은 경우를 연주가에게을 할수 있겠다.

일차전 14살 된 서주희 한 「천재 소녀」가 연주하는 「라프마니노프」를 듣고 확실히 비범한 소녀임에틀림이 없다는 사실은 강하게 인정하면서도 현저 저 보통 어린애가 어느정도음악을 알고, 자신의 음악적 정기 (狂氣) 를연주표표출해 낼수 있을지 의심을 품어보았다. 근자한 예표시 많은 음악관중석도 만나볼 때 기능으로서의 예술하기 질 (감동) 의 세계로서의예술은 분명히 구분되고 있음을 느끼게 해줄 때가많다.

> 기능의 세계를 터득한 사람이 감동의 세계를 획득할 개연성은 그 반대의 경우에 있는 사람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단지 자신의 감동이 결여된 유능한 기능인이 될때 초래될 불행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물론 기능의 세계를 터득한 사람이 감동의 세계를 획득할 개연성은, 그 반대의 경우에 있는 사람보다 높을 것은 사실이다. 단지 자신의 감동이 결여된 유능한 기능인이 될 때 초래될 불행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하는 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세계의 훌륭한 많은 작곡가 연주가들은 자신들의 선천적으로 음악적 자수성과 그들의 기능적 천재가 한때 어울렸을 때 만생한 것이겠지만 사회 분위기가 일찍 그 잠재적감수성을 눈뜨게 해준 계획이 크리라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서 훌륭한작곡가, 연주자, 음악애호가들이 반생하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감수성을 키워줄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어져야 할 것같다. 이럴때 일찍 해외유학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될수는 있겠지만… <강>

문화탐방

■제12회 「천마문화상」현상모집

대학인의 창의성 계발과 대학문한명성의 진작을위해 영남대 신문사에서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학작품을 아래와같이모집한다.

◇현상부문
단편소설 (70매내외)
시 (2편이상)
학술논문 (평론포함, 70매내외)
수필
◇응모자격 : 전국 남녀대학생
◇마감 : 1979년10월15일
◇보낼곳 : 경북 경산군 경산읍 대동 영대신문사 문화부

■숙대서 「범 (汎) 대학 문학·학술상」 공모

숙대신보사에서는 제10회 범대학 문학·학술상을 아래와같이 모집한다.

◇모집부문 : 단편소설 (200자 60~100매)
인문·사회과학분야의 학술논문 (100매 내외)
◇발표 : 1979년10월25일 숙대신보및 일간지
◇마감 : 1979년 9월말
◇보낼곳 : 용산구 청파동 숙명여대 신문사 범 (汎) 대학 문학·학술상계

■극단「프라이에부네」정기공연

극단 프라이에·부네에서는 오는 14, 15양일간 45회 정기공연으로 개오프구·위리너의 「보이체크(Woyzeck) 」를 남산 독립홀화원 강당무대에 올린다.

시간은 하오 4시, 7시 입장료는 없음.

■세종회관 전시실 서 출판물전시

독자와 출판업자간의 유대강화와 일반독자들의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정선된 도서가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전출보이게된다.

기간은 9월12일부터 19일까지, 전국출판사에서 발행된 책들과 잡틀벳이 전시될 예정.

음악계 빛나다

김 미 자

당나귀가 된 피노키오 없기를

「축제」! 말만 들어도 즐거움이 앞선다. 어떻이 함께 모여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질수 있다는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피노키오」는 일년 365일중 정초부터 성탄절까지 360일동안 축제가 있는것을 알아 나섰다. 물론 나중에 당나귀로 변하여 고생하는 어리석은 「피노키오」가 되어서는 안된다. 대학가에서는 일년에무빈정도 축제가 벌어진다. 설.

축제는 가히 대학남만의 절정이라고도 할만하다.

그러나 축제가 지닌 의미에 충실하기 보다는 겉핥 축제를 행사 그 자체로만 해석하고마는 것이 오즈음의 대학축제가 아닌가한다. 축제를 「주관하는측도, 계획되어진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행사에필요한 플러리의 자격으로 파트너를 구하고, 정장을하고 오기에 안간 힘을 다하는듯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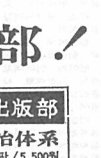
몇 시간전에 소개받은 파트너와 무슨 이야기를 할것이며 가슴 가장 일기가 좋을때를 택은 축제의 기분을 더 만끽복돋아주기 위함일 것이다. 매일매일 같은 일과에서 손을때어 벌은 시간이나마 마음껏 즐기는 일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더구나 대학축제는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귀중한 기회인만큼 학과에서 얻을수없던 지식을 축제를 통하여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도 결코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 모두를 마음껏 즐겁을 의지여 노력부르는 때을의 길이 되길 바랄뿐이다.

<영어과 조교수>

축 제

사랑마루

다음제목 : 현재교육
매 수 : 200자 3매
마 감 : 9월20일



권 영 일

대학축제, 모방본능 벗어나야

번지나는 운동장에 음악소리도 없이 들어온 사발들속에서 디스코를 추어본들 무엇이 나올것인지?

좀더 깔끔하고 상큼한 맛이나는 행사는없는지, 아니면 막걸리라도 한잔 걸치고 친구들과 어울려 세월과 젊음에대한 잡담으로 미비로바한 구석에서 낭만을 구가해볼수는 없는지.

한해 대학축제의 피날레를장식할 음악의 외문화모방은 갈가려서 즐겁고 어은이남을, 그동안의 갈증을 해소시킬수있는 그럴듯한 축제였으면 한다.

대학가의 축제가 모방본능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할 바에야 우리는 영원히 축제란 단어에 익숙하지 못할런가도모르겠다.

<웰어과·2>

□韓國大學出版協會□

대학출판부 연합광고

學術圖書 刊行으로 學問發展과
民族文化 暢達을 위해 앞서가는 大學出版部!

家畜審査精說 東國正韻
李基萬 著 3,300원 普及版 5,500원
家畜營養學 字類註釋
尹熙燮外共著 4,500원 影印本 5,000원
圖藝學汎論 大覺國師文集
金鍾天著 5,000원 影印本 6,000원
種苗生産學 甲申日錄
李庚照著 4,800원 趙一文譯註 1,300원
生化學 朝鮮策略
朴澤金外共著 6,000원 趙一文譯註 1,300원
建國大學校出版部
전화 445-7202 대체 : 서울511907

東西文學比較叢書 제1권
文學·장르·文學史
韓國大學校東西文化研究所編著
□교육사상가연구 ●신국재著
□國際經營戰略 ●정인상,김만재著 ●金南敏·趙時鎭共譯
□圖說圖書編目 ●金南頊著
□目錄學 ●金南頊著
□史料 美國史(하권) ●鄭萬得著
□叙事民謠硏究(증보판) ●趙東一著
□地域社會와 敎育 ●黃宗建著
□韓國古典小說 ●李相澤/陳大鎭/成賢慶共編
□行動科學의 理解 ●J.D.Thompson著 ●朱汶鄭譯
□現代國語文法 ●南基心·高永根·李翊燮共編
□鄕歌의 文學的 硏究 ●金思燁著(近刊)
啓明大學校出版部
전화 (0)1321~1330(교환) 대체계좌540559

高麗大學校出版部 新刊圖書
韓國經濟와 賃金構造
김준보 / 국판 / 220면 / 2,800원
轉換期韓國經濟의諸問題
성창환 / 국판 / 160면 / 1,800원
낱말밭의 이론
허 웅 / 국판 / 280면 / 5,000원
高麗土地制度史硏究
강진철 / 국판 / 500면 / 근간
韓國昆虫分布圖鑑 (Ⅲ)
김창환 / 국배판 / 400면 · 도판40면 / 근간
圖解 經尿道切除術
김세경 / 국판 / 120면 / 3,500원

自己完成을 위해 노력해보신지이 있읍니까?
여기 大學人과 現代人을 위한 「準敎文庫」
시리즈가 있읍니다.
카터와 南北韓 그는 성진 웃음의 編著主義者인가!
1 東西文化交流史 W.Franke著 金源模譯 1,200원
2 忠孝思想 韓國大出版部 編 1,200원
3 中國人의 韓國獨立運動 趙東華 辛勝夏譯 1,400원
4 時調同人誌의 樣相 朴仙鼎著 1,500원
5 英·美隨筆選 孔德鎭編譯 2,000원
鄭銘碩 著 값 2,000원
建國大學校出版部
(☎) 793-5034, (교) 794-9984~9

좋은 책만을 냅니다
패턴제작의 원리 9切判/444面 5,000원
음악감상입문 B5/360面 5,000원
연극원론 A5/198面 2,000원
발레 A5/168面 2,000원
독서토의지도 B6신/178面 600원
문화특강강좌 (Ⅰ, Ⅱ, Ⅲ) B5/280面 各巻 5,000원
徳成女子大學出版部
☎ (266) 9151~6 (交) (261) 6001~9 (交)

서울大學校出版部
增補版 韓國政治体系 尹天柱 著 크라운판/5,500원
法學全書54 勞動法總說 金致善 著 크라운판/5,400원
法律文獻索引 (1945~76) 서울大學校圖書館編 값 12,000원
대학교양총서
1 韓國現代詩의 精髓 鄭 眞 根著
2 近代化-그 眞實과 未來 金雄東·李炎九 林健雄·金眞鎬 共著
3 20世紀 이데올로기와 文學思想 鄭明煥·李 都 宋東燁·김 철 共著
4 現代美術의 理解 林 美 芳著
5 現代哲學의 思潮 ◆ 車仁鎬·韓正淑 ◆ 李明奭 共著
6 셰익스피어의 ◆ 生涯와 作品 李 京 植著

金三守著
韓國經濟史學의 論爭點 第1卷
文學·宗教와 經濟
4·6倍版/洋裝/360面/12,000원
金用淑著
朝鮮朝 女流文學의 硏究
新菊版/洋裝/400面/5,400원
李仁福著
죽음意識을 通해 본
素月과 萬海
菊版/半洋裝/180面/2,500원
◆韓國에스페란토運動史 金三守著/5,000원
◆韓國教育課程變遷史硏究 成川著/3,500원
◆李朝飢饉硏究 [illegible]著/3,000원
◆李朝女性硏究 [illegible]編/5,000원
延世大學校出版部
電話 32-6201/대체구좌 667055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柳東植著 값4,500원
韓國儒學史 裵宗鎬著 값4,000원
李朝語辭典 劉昌惇著 값8,000원
聖書文學의 理解 趙榮權著 값4,500원
韓國經濟論選 (Ⅰ, Ⅱ) 崔虎鎭著 값10,000원
星圖 羅逸星著 값8,000원
臨床病理檢査法 李三悅著 값6,000원
醫學論文作成法 全基銘·金允基共著 값1,500원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서울·서대문구대현동11-1 (전화) 34-2510

韓國女性史 (全3巻)
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 著
크라운판/1,350면/값18,000원
영양원리와 식이요법
朴日和·金淑喜·李鳳英 공저
크라운판/526면/값5,000원
敎養生態學
朴準奎 著
크라운판/370면/값4,000원
梨大出版部 창립 30주년 기념 「이화문고」 100권 출간!
1 哲學的信仰 申玉姬 역 값2,500원
2 女性學 여성연구소 편 값4,000원
3 論理와思考 蘇興烈 著 값3,500원

仁荷大學校出版部
Feelings of A Korean 朴 堣 p 213 2,000원
Thoughts of A Korean 朴 堣 p 200 2,000원
高級統計學 具滋興 p 459 4,000원
化學結合論 C.A. Coulson著 李金春譯 p 354 2,300원
飛龍隨想 仁荷大学校新聞社 p 267 1,200원

한국 최초의
한·불사전 출간
한국불어불문학회 교수들의 7년간에 걸친 역작 1,500면 150,000단어수록.
서한사전 에스빠냐어과교수 공저 4·6판 712p
이한사전 이탈리아어과교수 공저 4·6판 792p
대학국어 석일균교수 편 5×7판 300p
과학사서설 박성래교수 저 크라운판 236p
기초아랍어 김용선교수 저 5×7판 344p
기초일본어 전기정·정재인공저 5×7판 214p
기초서반아어 김이배·우덕룡공저 5×7판 326p
한국외국어대학출판부

■東方的,文化圖 속에서도 특히 우리 民族은 古來로 藝術을 사랑하고, 藝術을 장려하다시피 한 민족이었다. 이러한 傳統속에서 나온 作品인 이 歌曲集이 세계로 번역되어 불리게 될 수 있다면 本人에게는 더 없는 榮幸과 榮光이 될 것입니다.
金連俊歌曲集

歌曲百曲集 全13輯/音盤全13輯/피스全23輯
漢陽大學校出版部
서울城東区舍堂洞17 ☎ (254)3111~25 (交)